

제137호(2016. 12. 27.)

농축산물 가격변화의 소비자물가 기여도 분석

박미성 윤선희 김라이



1. 농식품분야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1
2. 농축산물 가격변화에 대한 소비자 반응 분석	4
3. 농축산물 가격변화의 소비자물가 기여도 분석	8
4. 요약 및 시사점	10

감 수	최지현	선임연구위원	061-820-2316	jihchoi@krei.re.kr
내용 문의	박미성	부연구위원	061-820-2362	mspark@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



- 통계청은 최근 소비자의 기호, 구매패턴 등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 지수를 개편하여 조사대상 품목 및 가중치 등을 재조정하였음.
- 식생활의 서구화, 여가활동의 증가 등으로 축산물 가중치가 증가하고 있지만, 농산물과 농축산물 가중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농축산물 가중치 변화: 87.0 ('00)→ 75.0 ('05)→ 65.6 ('10)→ 66.3 ('12)→ 66.0 ('15)
 - 농산물 가중치 변화: 65.9 ('00)→ 54.5 ('05)→ 43.5 ('10)→ 44.1 ('12)→ 41.9 ('15)
- 농축산물 가격변화에 대한 소비자 조사결과,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 시 모든 부류에서 가계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외식비 및 통신요금에 비해 농산물의 가계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고 있었음.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농축산물 가격 상승에 대한 가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비농축산물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함.
 - 배추 가격 상승에 대한 가계 부담 증가 응답자 비중: 72.2%(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이하) vs 54.6%(500만 원 이상), 17.6%p 감소
 - 휴대전화료 가격 상승에 대한 가계 부담 증가 응답자 비중: 94.4%(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이하) vs 88.1%(500만 원 이상), 6.3%p 감소
- 소비자들은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할 때, 실제 지출액은 가격 상승 이전과 비슷하게 하되 구매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배추는 가격이 상승할 때 '구매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5.3%로 나타남.
-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소비지출하는 품목은 휴대전화료이며, 가격 상승 시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일 품목은 커피(외식)로 조사되었음.
- 농축산물 가격변화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여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배추 가격이 50% 상승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는 0.06%p로 크지 않음.
 - 이는 커피(외식)의 기여도인 0.24%p의 1/4 수준임.
- 2016년 3/4분기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인 275만 원을 기준으로 품목 가중치를 활용하여 소비 지출액을 추정하면, 배추의 월 지출액은 3,300원, 달걀 월 지출액은 6,600원 수준임. 이는 커피(외식)의 월 지출액인 13,200원과 휴대전화료의 월 지출액인 10만 5,325원보다 낮은 수준임.
 -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낮은 배추, 달걀 가격이 50% 상승하고 소비량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각 품목의 월 소비 지출액 증가분(배추 1,650원, 달걀 3,300원)은 월 소비 지출액은 휴대전화료 가격의 10% 상승에 의한 추가 가계 부담분(10,533원)보다도 낮음.
- 농축산물 가격 변동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물가는 소비자의 특성 및 구입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농축산물 가격 변동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득, 가구원수 등 소비자의 특성 및 구입 시기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물가에 대한 기여도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농식품분야 소비자물가 가중치 감소, 특히 농산물 가중치 감소

1. 농식품분야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1.1. 소비자물가지수 개요

-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 소비자가구가 구입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임. 통계청에서는 매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동향과 물가 수준을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음.
- 통계청은 최근 소비자의 기호, 구매패턴 등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을 진행하였으며, 조사대상 품목 및 가중치 등을 전면 재조정함.
 - 기준연도 변경: 2010년(2010=100) → 2015년(2015=100)
 - 조사지역 조정: 37개 시 → 38개 시(도), 세종특별자치시와 용인시 추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통합
 - 조사대상 품목: 481개(2010년) → 460개(2015년), 조사상품(규격) 954개 → 999개
 - 가중치 기준연도: 2012년 → 2015년(2~3년 주기)
- ※ 2013년부터 가중치 개편주기를 5년에서 2~3년 주기로 단축, 연도 끝이 0, 2, 5, 7자 연도 기준으로 가중치를 개편
- 이번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따라 농식품분야 조사대상 품목은 곡류, 과일에서 각각 1개, 2개 품목이 추가되고, 채소류, 가공식품에서 각각 1개, 3개 품목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개 품목이 감소함.
 - ※ 조사대상 품목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 비중이 소비지출 총액의 10,000분의 1 이상(2015년 231원)되는 항목으로 지속적인 가격조사가 가능한 품목 선정

표 1. 농식품분야 소비자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 개편

단위: 개

구분	'10	'15	증감	비고
전 체	481	460	△21	
농식품	130	129	△1	
농축산물	57	59	2	
○ 농산물	51	53	2	
(곡물)	6	7	1	현미 추가
(채소)	28	27	△1	상추(상추+양상추), 피망 제외, 파프리카 추가
(과일)	13	15	2	블루베리, 아몬드 추가
(기타)	4	4	-	
○ 축산물	6	6	-	
가공식품	73	70	△3	파스타면, 식초 추가, 케첩, 커피크림 제외, 빵(빵+식빵), 차(차+음료), 햄 및 베이컨(햄+육류통조림)

1.2. 농식품분야 소비자물가 가중치 변화

-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기준액은 2015년 가계동향조사에서 1인 이상 전국가구(농어가 제외)의 소비지출액을 기초로 중고차구입비 일부를 제외하고 전세금 및 보증금 평가액을 추가한 금액(2,309,356원)임.
 -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는 2015년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을 이용하여 각 품목이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산출한 것임.
- 개편된 가중치를 바탕으로 농식품 전체의 가중치를 살펴본 결과, 2012년 138.1(전체 1,000)에서 2015년 136.1로 2.0 감소하였음. 농축산물과 농산물 가중치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축산물 가중치는 증가 추세임.
 - 농축산물의 가중치는 66.3('12)에서 66.0('15)으로 0.3 감소함.
 - 농산물은 곡물, 채소 등의 가중치 감소로 44.1('12)에서 41.9('15)로 2.2 감소함.
 - 반면, 축산물의 가중치는 식생활의 서구화, 여가활동의 증가 등으로 22.2('12)에서 24.1('15)로 1.9 증가함.

표 2. 농식품분야 부류별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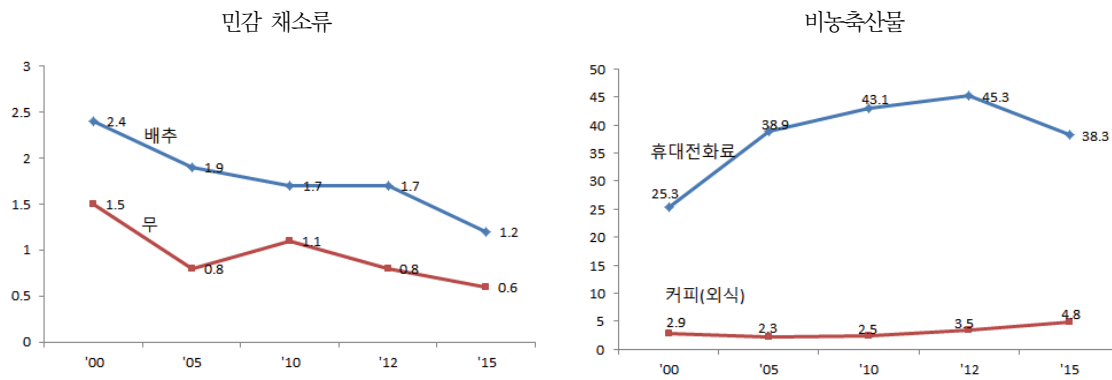
구분	'00	'05	'10	'12(A)	'15(B)	증감(A-B)
전 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농식품	154.2	136.8	134.6	138.1	136.1	△2.0
농축산물	87.0	75.0	65.6	66.3	66.0	△0.3
○ 농산물	65.9	54.5	43.5	44.1	41.9	△2.2
(곡물)	26.1	16.5	8.2	8.6	8.2	△0.4
(채소)	17.8	16.1	16.5	16.0	15.1	△0.9
(과일)	16.6	16.7	15.8	15.9	15.9	-
(기타)	5.4	5.2	3.0	3.6	2.7	△0.9
○ 축산물	21.1	20.5	22.1	22.2	24.1	1.9
가공식품	67.2	61.8	69.0	71.8	70.1	△1.7

자료: 통계청

- 식탁물가와 관련이 높은 배추, 무 등 민감 품목의 가중치는 2012년 기준보다 감소하여 가계소비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식용 커피 가중치는 증가하였음.
 - 배추와 무는 200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배추 가중치 변화: 8.7('85)→5.7('90)→3.7('95)→2.4('00)→1.9('05)→1.7('10, '12)→1.2('15)
 - 한편, 외식용 커피 가중치는 4.8, 휴대전화료 가중치는 38.3으로 배추, 무 등 민감 채소류 보다 높음.

농축산물의 단위 품목당 평균 가중치는 타 주요 품목군에 비해 낮은 편

그림 1. 민감 채소류와 비농축산물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변화 비교



- 농축산물의 단위 품목당 평균 가중치는 소비자물가 주요 품목군에 비해 낮은 편임. 농축산물의 평균 품목 가중치가 타 품목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농축산물 단일 품목이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음을 의미함.
 - 농축산물의 단위 품목당 평균 가중치는 1.2로 통신(10.9),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10.6), 교육(4.9), 의류 및 신발(2.0)보다 낮음.
 - 이는 농축산물 단일 품목의 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에 기여하는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시사함.

표 3. 농축산물과 주요 품목군과의 단위 품목당 평균 가중치 비교

구분	가중치('15년 기준)	품목 수	단위 품목당 평균 가중치
농축산물	66.0	71	1.2
의류 및 신발	61.4	30	2.0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170.2	16	10.6
보건	68.7	32	2.1
교통	111.0	32	3.5
통신	54.3	5	10.9
교육	97.0	20	4.9
음식 및 숙박	129.4	44	2.9
기타 상품 및 서비스	55.4	36	1.5

자료: 통계청

농축산물 가격변화에 대한 소비자 조사

2. 농축산물 가격변화에 따른 소비자 반응 분석

2.1. 조사 개요

- 최근 일부 농축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 소비자들의 소비 변화 및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기간: 2016년 12월 21~22일
 - 조사응답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주부 소비자패널 627명
 - 조사방법: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조사
 - 표본오차: ± 3.91 (95% 신뢰수준)
- 응답자 특성
 - 연령대는 40대가 45.1%로 가장 많고, 50대 31.6%, 30대 14%, 60대 이상 7.7%, 20대 1.6%로 나타남.
 - 가구당 월 소득은 400~500만 원이 30.3%로 가장 많고, 500만 원 이상(28.4%), 300~400만 원 (22.2%), 200~300만 원(14.2%), 200만 원 이하(3%) 순서로 나타남.
 - 직업은 주부가 52.3%로 가장 많고, 사무직 18.8%, 관리/전문직 8.8% 등으로 나타남.

표 4.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전체		627	100.0
연령	20대	10	1.6
	30대	88	14.0
	40대	283	45.1
	50대	198	31.6
	60대 이상	48	7.7
월소득	200만 원 이하	19	3.0
	200~300만 원	89	14.2
	300~400만 원	139	22.2
	400~500만 원	190	30.3
	500만 원 이상	178	28.4
직업	주부	328	52.3
	사무직	118	18.8
	관리/전문직	55	8.8
	시간근로제(아르바이트)	36	5.7
	자영업	30	4.8
	기타	60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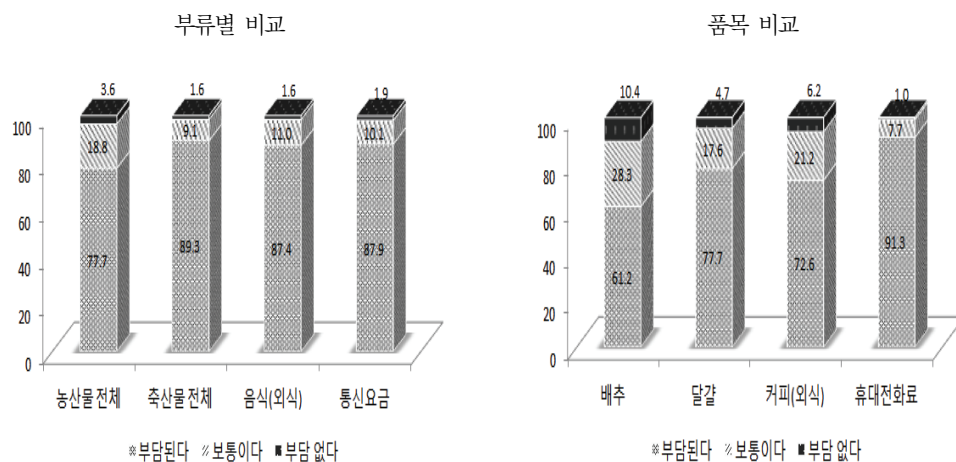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 시 모든 부류에서 가게 부담을 느끼지만, 농산물 가격 상승의 가게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낌

2.2. 조사 결과

□ 가격 상승 시 모든 부류에서 가게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외식비 및 통신요금에 비해 농산물의 가게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고 있음.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소비자의 가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 시 모든 부류 및 품목에서 가게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 중 가격이 상승했을 때 부류별 가게 부담 정도는 축산물이 90%, 통신요금이 88%, 음식(외식)이 87%, 농산물이 78% 순서로 나타남.
 - 7점 척도 기준 부류별 평균 점수(1점 전혀 부담 없다, 7점 매우 부담된다)로 살펴보면, 통신요금이 5.9점, 축산물이 5.7점, 음식(외식)이 5.6점, 농산물이 5.4점임.
 - 대표 품목의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 휴대전화료가 6.0점, 달걀이 5.4점, 커피(외식)가 5.2점, 배추가 4.8점임.
 - 농산물(배추)의 가격 상승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가게 부담은 통신요금(휴대전화료), 음식(커피(외식)) 등 다른 부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소비항목별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게 부담 정도



- 소득수준별로는 모든 부류 및 품목에서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배추 가격 상승에 대한 가게 부담: 72.2%(200만 원 이하) vs 54.6%(500만 원 이상), 17.6%p 감소
 - 휴대전화료 가격 상승에 대한 가게 부담: 94.4%(200만 원 이하) vs 88.1%(500만 원 이상), 6.3%p 감소

가격 상승 시 농축산물 실제 지출액은 이전과 비슷하고 구매량은 감소함

표 5. 소비항목별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정도(소득수준별)

단위: %

구분		200만 원 이하	200~300만 원	300~400만 원	400~500만 원	500만 원 이상
농산물 전체	부담된다	84.2	87.4	82.2	73.5	73.6
	보통이다	10.5	10.3	13.3	22.2	23.6
	부담 없다	5.3	2.3	4.4	4.2	2.8
- 배추	부담된다	72.2	75.0	67.4	53.4	54.6
	보통이다	22.2	17.0	20.0	35.4	35.1
	부담 없다	5.6	8.0	12.6	11.1	10.3
축산물	부담된다	94.4	94.3	89.1	88.9	86.9
	보통이다	5.6	5.7	8.8	9.5	11.4
	부담 없다	0.0	0.0	2.2	1.6	1.7
- 달걀	부담된다	82.4	90.9	81.0	73.0	72.9
	보통이다	11.8	4.5	16.8	22.8	20.3
	부담 없다	5.9	4.5	2.2	4.2	6.8
음식(외식)	부담된다	94.4	92.0	89.1	87.9	83.1
	보통이다	5.6	8.0	8.8	10.5	15.2
	부담 없다	0.0	0.0	2.2	1.6	1.7
- 커피(외식)	부담된다	72.2	81.6	68.6	76.6	67.8
	보통이다	27.8	10.3	25.5	18.6	25.4
	부담 없다	0.0	8.0	5.8	4.8	6.8
통신요금	부담된다	88.9	92.0	87.0	91.1	83.1
	보통이다	11.1	4.5	12.3	7.4	14.0
	부담 없다	0.0	3.4	0.7	1.6	2.8
- 휴대전화료	부담된다	94.4	94.3	92.1	92.0	88.1
	보통이다	5.6	3.4	7.9	6.9	10.7
	부담 없다	0.0	2.3	0.0	1.1	1.1

□ 가격 상승에 따른 농축산물 가계 부담은 크게 느끼나, 실제 지출액은 비슷

- 가격 상승 시 농축산물 가계 부담은 크게 느끼고 있으나, 농축산물 지출액은 가격 상승 이전보다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배추 및 달걀의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지출액 변화 조사 결과, 가격 상승 이전과 ‘동일하다(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각각 40.9%, 42.4%로 높음.
 - 소비자들은 배추 및 달걀 가격이 상승할 때 소비 지출액을 가격 상승 이전과 변화 없이 지출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구입량을 줄이는 것으로 판단됨.
 - 배추는 가격 상승 시 ‘구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3%로 달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소비하는 품목은 휴대전화료

표 6. 최근 가격 상승에 따른 배추 및 달걀 소비 지출액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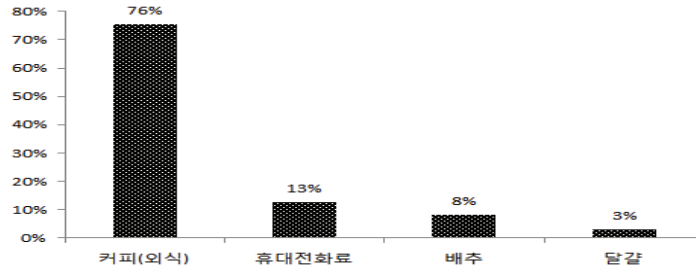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증가	변화 없음	감소	구매하지 않음
배추	16,9	40,9	26,9	15,3
달걀	21,4	42,4	34,4	1,8

□ 가격 상승 시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일 품목은 커피(외식)이며,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소비되는 품목은 휴대전화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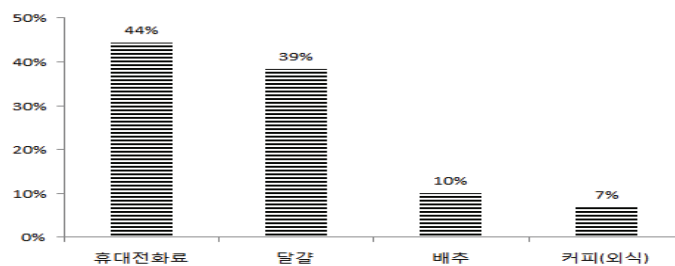
- 가격이 상승할 때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일 품목은 커피(외식)가 75.6%로 가격 상승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남.
 - 배추와 달걀은 가격 상승 시 지출을 줄이겠다는 응답 비중이 각각 8.4%, 3.2%로 외식용 커피(75.6%)와 휴대전화료(12.9%)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3. 가격 상승 시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일 품목



-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꾸준히 소비하는 품목은 휴대전화료(44.5%)로 나타남. 휴대전화는 가격 변화와 무관하게 꾸준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어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한 품목임을 시사함.
 - 달걀이 배추, 커피(외식)보다는 가격 변동에 덜 민감하게 소비되는 품목으로 나타남.

그림 4. 가격 변동에 무관하게 소비하는 품목



총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품목의 전월 대비 기여도 산정식

3. 농축산물 가격변화의 소비자물가 기여도 분석

- 농축산물 가격변화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품목의 전월 대비 가격 변동(품목 지수 변화)이 총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하였음. 2016년 11월 품목의 전월 대비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산정식은 다음과 같음.
 - 품목의 전월 대비 기여도는 전월 대비 품목 지수 변화와 전월 총 소비자물가지수와의 차이, 품목 가중치가 총지수 가중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의해 결정됨.

〈품목의 전월 대비 기여도 산정식〉

$$\text{품목의 전월 대비 기여도} = \frac{(\text{당월 품목 지수} - \text{전월 품목 지수})}{\text{전월 총 지수}} \times \frac{\text{품목 가중치}}{\text{총지수 가중치}} \times 100$$

- 2016년 11월 품목의 전월 대비 기여도를 계산해보면 <표 9>와 같음. 배추 소비자물가지수가 2016년 10월에 232.8에서 2016년 11월 129.2로 감소하여 총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기여도는 -0.12%p로 나타남.
 - 휴대전화료와 커피(외식)는 소비자물가지수 변화가 거의 없어 전월 대비 기여도는 0%p임.

표 7. 총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품목의 전월대비 기여도 추정

	가중치	2016. 10. 소비자물가지수 (2015=100)	2016. 11. 소비자물가지수 (2015=100)	전월 대비 기여도
총 지수	1000.0	101.6	101.5	
(농산물) 채소	15.1	127.2	119.9	-0.108
배추	1.2	232.8	129.2	-0.122
축산물	24.1	108.1	106.5	-0.039
달걀	2.4	92.6	94.1	0.003
커피(외식)	4.8	100.4	100.6	0.000
휴대전화료	38.3	100.0	100.0	0.001

배추 가격 50% 상승 가정 시,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는 0.06%p로 커피(외식)보다도 낮은 편

- 만약 모든 품목 지수가 100에서 150으로 상승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전월 대비 품목 지수 변화와 전월 총 소비자물가지수와 차이는 동일하기 때문에 품목 가중치가 총지수 가중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달라짐. 즉, 가중치가 큰 품목일수록 총 소비자물가 지수에 대한 품목의 기여도가 높게 나타남.
 - 가중치가 높은 휴대전화료의 기여도가 1.92%p로 높음.
- 가중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배추의 경우, 배추 가격이 50% 상승하더라도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는 0.06%p임. 이는 커피(외식)의 기여도인 0.24%p의 1/4 수준임.

표 8. 품목 지수가 100에서 150으로 상승 가정 시 각 품목의 기여도 추정

	가중치	당월 소비자물가지수 (2015=100)	전월 소비자물가지수 (2015=100)	전월 대비 기여도
총 지수	1000.0	100		
(농산물) 채소	15.1	100	150	0.76
배추	1.2	100	150	0.06
축산물	24.1	100	150	1.21
달걀	2.4	100	150	0.12
커피(외식)	4.8	100	150	0.24
휴대전화료	38.3	100	150	1.92

- 2016년 3/4분기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인 275만 원을 기준으로 품목 가중치를 활용하여 소비 지출액을 추정하면, 배추의 월 지출액은 3,300원, 달걀의 월 소비 지출액은 6,600원 수준임. 이는 커피(외식)의 월 지출액인 13,200원과 휴대전화료의 월 지출액인 10만 5,325원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 만약 배추와 달걀 가격이 전월 대비 50% 상승 가정 시, 배추 월 소비 지출액은 4,950원, 달걀 월 소비 지출액은 9,900원 수준임.
 -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낮은 배추, 달걀 가격이 50% 상승한 월 소비 지출액 증가분(배추 1,650원, 달걀 3,300원)은 휴대전화료의 10% 상승에 의한 추가 가계 부담분(10,533원)보다 낮음.



4. 요약 및 시사점

- 농식품분야 가중치는 감소 추세임. 축산물 가중치가 증가하고 있지만, 농산물 가중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농축산물 가중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농축산물이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함.
 - 농축산물 가중치 변화: 87.0('00)→ 75.0('05)→ 65.6('10)→ 66.3('12)→ 66.0('15)
 - 농산물 가중치 변화: 65.9('00)→ 54.5('05)→ 43.5('10)→ 44.1('12)→ 41.9('15)
 - 축산물 가중치 변화: 21.1('00)→ 20.5('05)→ 22.1('10)→ 22.2('12)→ 24.1('15)
- 농축산물 가격변화에 대한 소비자 조사결과,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 시 모든 부류에서 가계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외식비 및 통신요금에 비해 농산물의 가계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고 있었음.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농축산물 가격 상승에 대한 가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비농축산물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함.
 - 배추 가격 상승에 대한 가계 부담 증가 응답자 비중: 72.2%(200만 원 이하)→54.6%(500만 원 이상), 17.6%p 감소
 - 휴대전화료 가격 상승에 대한 가계 부담 증가 응답자 비중: 94.4%(200만 원 이하)→88.1%(500만 원 이상), 6.3%p 감소
- 농축산물 가격변화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여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배추 가격이 50% 상승하면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는 0.06%p로 커피(외식)의 1/4 수준임.
- 2016년 3/4분기 기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인 275만 원을 기준으로 품목 가중치를 활용하여 소비 지출액을 추정하면, 배추의 월 소비 지출액은 3,300원, 달걀 월 소비 지출액은 6,600원 수준임. 이는 커피(외식)의 월 지출액인 13,200원과 휴대전화료의 월 지출액인 10만 5,325원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낮은 배추, 달걀 가격이 50% 상승한 월 소비 지출액 증가분(배추 1,650원, 달걀 3,300원)은 휴대전화료의 10% 상승에 의한 추가 가계 부담분(10,533원)보다도 낮음.
- 농축산물 가격 변동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물가는 소비자의 특성 및 구입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농축산물 가격 변동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득, 가구원수 등 소비자의 특성 및 구입 시기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물가에 대한 기여도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2016년

- 제137호 농축산물 가격변화의 소비자물가 기여도 분석(박미성, 윤선희, 김라이)
- 제136호 쌀 수급 동향 및 안정 방안(김태훈, 조남욱, 김종인, 우병준)
- 제135호 2016년 가구의 김장 수요와 채소 공급 전망
(김성우, 송성환, 노호영, 임효빈, 최선우, 한은수, 이형용, 노수정)
- 제134호 당류 저감 정책에 따른 과일산업의 대응과제(박미성, 신성철)
- 제133호 2016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림축산물의 소비·출하 및 가격 전망
(박미성, 이상민, 성명환, 우병준, 김태훈, 김성우, 장철수, 송미령)
- 제132호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오내원, 황의식)
- 제131호 2016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정학균, 이혜진, 김창길)
- 제130호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김현중, 국승용)
- 제129호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이용선, 이형우, 이미숙)
- 제128호 브렉시트(Brexit)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사점
(한석호, 서홍석, 지성태, 이상현, 염정완, 정호연)
- 제127호 한·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26호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국승용, 최지현)
- 제125호 2016년 일본 아베 정부의 농정개혁 현황과 시사점(김종인)
- 제124호 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허 장, 이윤정)
- 제123호 지역 단위 6차산업화의 추진 방향과 과제(정도채, 성주인, 심재현)
- 제122호 곤충산업 실태와 육성정책 방향(김연중, 박영구)
- 제121호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 제120호 2016년 10대 농정 이슈(송미령, 김홍상, 박준기 등)

2015년

- 제119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118호 닭고기 수급 불균형과 파급 영향(우병준, 김형진)
- 제117호 2015년 김장철 채소류 수급 전망과 절임배추 소비특성 분석
(최병욱,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 제116호 쌀, 김치, 삼계탕 대중국 수출 검역협상 타결과 과제
(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 제115호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응전략(정학균, 김창길)
- 제114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농업분야 협상결과와 시사점
(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
- 제113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에 따른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 제112호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평가와 향후 과제(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11호 김치의 한·중 검역협상 동향과 수출 확대방안(최병욱, 노호영)

KREI 농정포커스 제137호

농축산물 가격변화의 소비자물가 기여도 분석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6. 12. 27.

발 행 인 김창길

편집위원 최지현, 우병준, 김수석, 김용렬, 한석호, 문한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한디자이크퍼레이션

 02-2269-9917

admin@han-d.co.kr

ISBN: 978-89-6013-941-1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